

헌법재판연구원  
제10회 국제학술심포지엄

# 축 사



2021. 6. 25.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오늘 헌법재판연구원이 ‘헌법재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제10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뜻깊은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헌법재판소의 싱크탱크인 헌법재판연구원이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님, 한국과 시간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멀리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주신 리처드 앨버트(Richard Albert) 교수님, 앙겔리카 누스베르거(Angelika Nußberger) 교수님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회와 토론을 맡아 주신 교수님들과 오늘 이 자리를 훌륭하게 준비해주신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중장기적·체계적 연구와 헌법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2011년 설립된 헌법재판연구원은 지난 10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시의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뿐만 아니라, 각국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도 훌륭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제학술대회도 이러한 비교헌법연구의 일환으로 국내외 석학들의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어 왔습니다.

오늘 발표할 리처드 앨버트(Richard Albert) 교수님의 발제문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0년 광고를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대중은 모든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며 그들 스스로가 정보의 왜곡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유럽인권재판소는 2013년 정치적 방송 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영국 법률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Animal Defenders International v. the United Kingdom). 이를 허용할 경우 자본에 의해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입장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Harper v. Canada).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도 2016년 정치광고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하여 광고라는 매체의

특성상 경제력에 따라 그 이용 가능성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합헌 판단을 한 바 있으며(2013 헌바26), 지금도 유사한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가 계속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보편적 인권의 해석은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서 달리 이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보편적 인권을 해석하는 세계 각국의 기관들은 자신들의 판례를 통해 서로에게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좀 더 객관적으로 비춰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권의 보편성을 현실에 구현해 가는 데 있어 좋은 지침이 되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1988년 창립되었을 때 불과 39건이었던 접수사건 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여 2001년

1,000건을 돌파했고, 작년에는 3,000건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근래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들은 거의 예외 없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 위하여 집중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가 점점 더 커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쟁점이 된 중요한 사건은 물론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헌법에 따라 철저히 심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산업과 사회의 변화, 소득 양극화의 심화 및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 사회와 인류의 미래

를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와 도전은 새로운 헌법적 쟁점에 대한 고민과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국제학술대회의 주제인 ‘헌법재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더욱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은 팬데믹 환경 하에서 부득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회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그 열정과 진지함은 변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밀려오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시대적 요구들을 조화롭게 수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에 우리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읍시다.

다시 한번 오늘 국제학술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헌법재판연구원의 발전과 참석자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6. 25.

헌법재판소장 유남석